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음 7월 25일) 제 18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대응

▶ 도, 정책조정회의 개최

삼각농정 산림분과위 중심
실행과제 추진 등 토의 진행

채택된 과제는 협치 통해
자원이용분야 발전모델 조성

전북도가 도내 전체 면적의 54.9%(44만3,000ha)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아 이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 대학, 관련 현장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방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산림자원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 삼각농정 산림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실행

과제 추진 등 방향설정을 위해 토의를 진행하고, 채택된 실행과제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산림조합, 임업인 등이 공유한 뒤 협치를 통해 도내 전체 산림자원 이용 분야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우선 실행과제로, 산림복합경영 지원 확대, 돈이 되는 임업을 위한 전문생산자 중심 심화교육 추진,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R&D 실행,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자원순환형 목재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화다.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민영 정읍산업조정협의회장은 “산림자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임도와 작업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확충”을 김규석 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은 “산림자원과 임산물에 관심을 두고 도지사가 이렇게 직접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면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두릅이나 고사리, 도라

지 등 임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목별단지화사업(산나물산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산림자원은 앞으로 생산의 1차산업부터 가공과 유통의 2차산업, 산림휴양과 치유 등의 3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으로의 발전을 연구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승 환경녹지국장은 이에 대해 “삼각농정위원회(산림분과)의 토론회와 도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의사결정된 산림자원 이용활성화 실행과제 등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연구기관, 임업기관,단체들과의 정보공유 소통을 통해 주요 고소득 임산작물과 연계한 산림복합경영 확대와 생산자 위주의 전문기술교육을 추진,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목재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1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에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규 타타대우 대표이사,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특장차 기업에서 만든 무인철거로봇 신제품 출시식을 가졌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 개막

송 지사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북경제 주력산업 경쟁력 높일 것”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기술융합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7년도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14일 개막했다.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해외바이어, 이공계열 대학생과 특성화고 고교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주력산업인 자동차, 뿌리기업과 도내 이공계 대학생과 특성화고교생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어울리는 행사로 채용박람회, 수출기업상담, 명사특강, 기술성과 전시회, 미래자동차 체험을 중심으로 15일까지 계속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약 500여개의 뿌리기업이 있고, 자동차 산업은 한국 GM군산공장, 타타대우상용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3개 완성차 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만도 400여개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개막식은 퓨전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자동차·뿌리기술의 상생협력과

도약을 다짐하는 한마당 잔치가 시작됐다.

송하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국가 전략산업이자 전북 대표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산업”이라며 “자동차·뿌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전북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기계공고 등 10개교 4백여명에게 꿈과 희망을 줄 전 개그콘서트 서수민 PD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자동차,뿌리기업 간 성과공유를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장이자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꿈을 키우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인들과 청년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한반도 핵무기 필요하지 않아”

문 대통령, “동북아에서 핵무장 경쟁 일으킬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반도에 핵무기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약 60분간 CNN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 진전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며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안철수 전북예산 확대 ‘사실무근’”

민주당 안호영 의원 “새만금 SOC 등 전년보다 증액”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전북예산 확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안호영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당해 연도 지자체의 건의예산 대비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계, 절차상 사용되지 않는 분석”이라며 “전년 대비 증감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안철수 대표가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6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신청한 5610억원의 예산 중 50%인 3000억원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안 의원은 특히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예산 삭감과 새만금

국제공항예산 미반영 등 새만금 SOC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만금 SOC는 2017년 1488억원이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는 2662억원으로 전년 대비 72.2%가 증가했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예산 역시 2017년 71억원이던 것이 2018년 536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게다가 정부의 SOC 축소방침에 따라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도로 2단계와 새만금수목원, 공공매립 등의 신규사업도 적극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호남유일의 여당 예결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정부예산보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축! 전주매일 창간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부안군

“청정 부안의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한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 정다운 선물 추천

명품쌀 '전년의 솜씨' 부안콩 부안쌀 부안고추 부안고동어